

성인이 되는 해와 같은 특별한 생일 날이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서 그 나이와 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이 곳 호주에서는 21살이 그런 특별한 나이일 것입니다.

21살은 호주에서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이지요.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계약서에 싸인을 할 수 있으며 이전에는 어려서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21살이었던 것이 이제는 18살이면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지요.

우리가 교회의 생일을 생각해 본다면 보통 우리는 교회 건물을 헌당한 날이나 새로운 교단, 노회가 시작한 날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 유나이팅 교단은 1977년 6월 2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의 기원을 성령강림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령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수년 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임을 선포했지요.

하지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은 이후 두려움이 없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려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신 그의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고백함에 있어서 감옥에 가게 되거나, 심지어 순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죽음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와 같은 형상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말합니다.

바람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는 '바람'이나 '숨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생기이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었던 바람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일으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일깨워준 바람.

바람은 제자들에게 생명과 힘과 믿음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을 살펴보면, 불타는 가시나무에 있었던 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라는 미션을 깨닫게 만들어 준 것이었고, 이제 이 불은 성령강림 사건 가운데 제자들에게 임하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미션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각 제자들은 거리와 시장으로 나가 그 곳에서 만나는 각 사람의 언어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의 설교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까지 닿고자 바벨탑을 건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그들의 계획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원의 복된 소식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한 복된 소식을 각각 그들의 언어로 그 어떠한

혼란과 혼동도 없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어떻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했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대에 걸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2019년의 시드니 이 땅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었겠지만, 정확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종교개혁교회 주석은 민수기 21장 부분에서 성령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성령은 나이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상관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과학이나 예술, 미디어의 영역에서 그리고 거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재촉한다. 성령은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동안 성령님께서 꼭 우리를 전 세계 각지로 보내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때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는 불가항력적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늘 우리를 깨어 있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미세한 소리가던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강한 바람과 불과 같은 것이던지 상관 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시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교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살아 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오늘 성령강림주일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